

‘차이나 머니’가 몰려온다

(중국계 자금)

뉴스&이슈 도내 대규모 개발 투자 러시

중국계 투자자금 ‘차이나 머니’가 몰려오고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FDI)는 2013년 4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1억9,000만 달러로 늘었다. 대규모 투자로는 도내에 가장 먼저 상륙한 중국계 투자사인 상차오홀딩스가 강릉 정동진에 2,000억원 규모의 관광단지인 차이나 드림시티를 조성 중이다.

사업	위치	사업비
차이나 드림시티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산119-1(임) 외 2필지	2,000억원
더 스키 호텔&리조트	평창군 대관령면 중계 특구 내 관광기반 시설지구	2,500억원
중국 L그룹 숙박시설	동해안권	1,400억원
중국 S그룹 숙박시설	영서권 수도권 인접지역	5,000억원
R리조트	중국 투자 유치 중	4,000억원
홍콩 A그룹 A리조트	투자 검토 중	1조원

차이나 머니의 도내 상륙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차이나 드림시티 이외에도 중국계 자본 5-6곳이 투자규모 1,400억원에서 1조원 규모의 대형 관광개발사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중국계 자금과 국내 자본의 합작법인 사프게인코리아는 평창 대관령에 26만㎡의 ‘더 스키 호텔&리조트’ 조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국 L그룹은 동해안권 숙박시설, 중국 S그룹은 원주권 숙박시설을 추진 중이다. 중국기업은 R리조트, 홍콩 A그룹은 1조원 규모 리조트는 사업을 위해 물밑 협의 중이다. 춘천시는 옛 캠프페이지에 대한 상차오홀딩스의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 같은 현상은 중국의 경제규모 급증, 방한 중국인 급증, 동·동시·도와 정부의

2조원대 개발사업 추진

강릉 정동진 관광단지 조성 비로동해안·원주·춘천서도 물밑 협의 부동산 투기 전략 우려도 개발 요지 잠식... 사업 답보 초래 전문가들 “전략적인 접근 필요”

부동산투자이민제, 경제자유구역 등을 통한 투자유치 열풍, 중국과 2시간 내외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등이 근본 이유다. 중국정부가 지난해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것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도내에서는 동해안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이 우선 투

자관심지역이다. 차이나 머니에 대해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투자사업 현실화 문제가 지적된다. 평창 알펜시아의 경우 2011년 2월 도와 중국 A투자관리유한공사가 총 3,5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까지 했었지만 이후 진전이 없다. 그동안 중국 투자단 20여곳이 알펜시아 등 도를 방문했지만, 대부분 가시화되지 못했다.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점도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도와 시·군에서는 차이나 머니 유치를 위해 개발사업 대상 부지를 적극 알선하고 있다. 이는 ‘도내 개발 요지’가 중국계 자금이 잠식당한 후 사업은 장기간 답보해 자칫 부동산 투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세에 있는 것은 중국계 자금의 도내 투자를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중국계 자금의 국내 투자는 국내 관광수요 외에 방한 중국인을 주요한 수요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도 방문 중국인 관광객은 최근 3년간 연간 20% 내외의 증가세다.

코트라 백진중 전문위원은 “제주도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중국자본 유치는 갈날의 양면처럼 금·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다”며 “중국자본 유치 시에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훈기자 hokuy1@kwnews.co.kr

3면에 계속

중국계 자본 도내 개발 투자 러시

1면에서 계속

전홍진(중국 지리대 경제학 박사) 도 통상지원과장은 “지난해 방한 중국인



2018 동계올림픽 평창·강릉 시범도시 조성사업

【2018년 2월 1일(월) 10시 30분(10시 30분)】

확립 확립은 작은 변화의 큰 에너지입니다. 인명 단상의 밝은 웃음이 강행의 열풍입니다. 힘의 만의 보낸 양분(동기)의 단상의 열풍입니다. 힘의 만의 보낸 양분(동기)의 단상의 열풍입니다. 힘의 만의 보낸 양분(동기)의 단상의 열풍입니다.

홍사 나눔의 손길로 행복을 사세요



이 600만명을 돌파했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투자가 부산 서울 강원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강원도의 경우 동해안 지역에 중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정부는 그동안 해외투자를 엄격히 제한했지만 지난 해 9월 해외투자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며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겠지만 투자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도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훈기자 hokuy1@kwnews.co.kr

건설업 체감경기가 올 들어 악화

지난해 말 5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올해 들어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지난 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75.8로 지난해 12월(91.7)에 비해 15.9포인트 떨어졌다.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 업체가 지난해 말과 동일한 100을 기록한 반면 중견업체는 25.1포인트 하락한 71.9, 중소기업체는 24.1포인트 떨어진 51.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하위윤기자 faw4933@

건축물 4곳 중 1곳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

9만2,768동 1985년 이전 건축

도내 건축물 4곳 중 1곳은 3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거용·상업용·공업용·문화사회용 등을 포함한 도내 건축물은 총 38만4,431동으로 이 중 30년 이상 건축물은 전체의 24.1%인 9만2,768동으로 나왔다.

도내에 있는 건물 4개 중 1개는 1985년 이전에 세워진 건물인 셈이다.

10년 미만 건물은 6만6,805동(17.4%), 20년 미만은 8만186동(20.9%), 30년 미만은 5만5,850동(14.5%) 등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은 평창군 봉평면 면운리에 위치한 보광휘니스파크 스키이콘도 블루동으로 28층 높이었다.

국내 최고층 건축물은 부산 해운대 두산위브 더제니스 101동이 80층으로 가장

높았고, 높이로는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의 305m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 잠실에 짓고 있는 롯데월드타워(123층, 555m)가 내년 완공되면 최고층 건물이 모두 바뀐다. 하위윤기자

건설협회도회 운영위 개최

◇정동기대한건설협회도회장은



은 2일 오전 11시 춘천시 동면 도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

== 사 설 ==

올림픽시설, 지역 업체 참여 높여야

-외지업체 배물렀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법·규정 적극 활용

평창겨울올림픽이 열릴 예정인 중봉 알파인 스키장과 아이스하키I-II 경기장 등 설상(2)과 빙상(4)을 포함한 8개 경기장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공영통과 참여 업체,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예산과 올림픽 경기장이라는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올림픽 분산개최 논란이 매듭된 뒤 도내를 비롯한 전국의 각 업체도 경기장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강원도도 최근 발행한 '행복한 강원도' 소식지를 통해 설상(2528억 원)과 빙상(4465억 원) 등 경기장 건설에 모두 6993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전입도로 예산 3552억 원을 포함하면 올림픽시설 직접 투자비는 1조545억 원이다. 경기부양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올림픽효과를 도내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기업 우대기준과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제정했다. 또 지역 의무공공도급 등을 통한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시키고, 각종 자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반영된 지역제품 비율은 전체 공급자재 2108억 원 가운데 986억 원으로 47%에 이른다. 나머지는 콘크리트와 리프트 등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했다. 도는 앞으로도 공

종별 분리발주와 지역하도급을 확대하고 지역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 지역 업체로서는 호재이자 기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불만과 함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불만소리가 그 것이다. 풍덩이공사는 외지업체에 돌아가고 부스리기만 떨어진다는 푸념도 전해진다. 설계와 발주를 담당하는 동계올림픽본부와 계약 부서는 이 같은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올림픽 유치로 외지업체만 배물렀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한 지역 업체를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강원도의회가 엇그제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올림픽이 국가와 도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당연한 다짐이자 결의다. 도의회는 이 같은 다짐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실질적인 첫걸음이 강원지역 업체와 도민들의 올림픽 준비 참여다. 경기장건설을 비롯해 문화·예술 등 올림픽 관련 분야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강원도판 올림픽 유산 창출과도 맞닿아 있다.



◇정동기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2일 오전 11시 도회 회의실에서 제6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나라장터 '해킹 차단' 입찰부정 뿌리뽑는다

조달청, 16일부터 '안전입찰 서비스' 가동

전자입찰의 가장 큰 맹점으로 꼽히는 PC해킹을 통한 각종 입찰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가 본격 가동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1일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조달기업의 PC 보안을 대폭 강화한 '안전입찰 서비스'를 오는 16일 시설공사 공고분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시설공사에 적용하고 이어 내달 16일부터는 물품 구매 입찰에 적용할 계획이며, 또 4월 6일부터는 용역입찰로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입찰 서비스는 조달기업 입찰 참가자에게 나라장터 가상PC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해킹을 원

천 차단하고 안전하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앞서 지난해 10월 이 서비스를 구축한 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조달기업의 서비스 전환에 따른 이용환경을 점검하고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서비스가 운영되면 기존 나라장터 서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조달기업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입찰정보를 빼내거나 이를 조작, 변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서버나 PC 해킹을 통해 경쟁사들의 투찰률(금액) 정보를 빼내고 조작하거나 추첨 예정가격을 변조해 낙찰받는 등의 행위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조달청, 이번주 36건·884억 입찰 집행

LH, 건설공사 13건 980억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번주(2.2~2.6) 예산 군민체육관 건립공사 등 모두 884억원(추정가액 기준) 상당의 시설공사 36건에 대한 입찰을 집행한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입찰 건수는 16건이나 늘었지만 전체 집행 규모는 오히려 90억원가량 줄었다.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부재 속에 100억원 이상 중대형 물량 역시 전주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다. 계약 방법별로 보면, 36건의 공사 중 35건이 적격심사 대상이며 나머지 1건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된다.

관심물량으로는 오는 3일 개찰이 예정된 예산군민체육관 건립공사(건축, 토목)가 꼽힌다.

추정가격은 102억원 규모로, 앞서 예정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한 차례 유찰을 겪은 바 있다.

6일 입찰이 집행되는 천안불무초등학교(가칭) 교사 신축공사와

의성중부중학교(가칭) 교사 신축공사도 각 108억원 규모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조달청은 이를 포함해 모두 35건의 입찰이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 무공공도급 대상으로, 전체의 약 68%인 605억원 상당을 해당 지역 업체가 수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는 총 98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13건을 집행한다.

이는 지난주(993억원, 14건)에 비해 입찰건수는 1건, 금액은 13억원 감소한 것으로, 입찰건수에 큰 변화가 없고 300억원 이상 중대형 입찰도 없어 입찰금액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다만 오산세교 B-6블록 아파트 전기공사 13공구(106억원) 및 하남미사 A29블록 아파트 전기공사 16공구(192억원), 양주옥정지구 도시정보화(U-City) 정보통신공사(146억원)가 100억원을 넘어 눈길을 끈다.

봉승권·채희찬기자 hchc@

알립니다

범건설인 축제의 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6회 건설인 하프마라톤 대회 5월 31일 월드컵경기장서 열려

‘건설경제 하프마라톤 대회’가
‘건설인 하프마라톤 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범 건설인과 함께 달립니다.

(건설경제신문)과 건설공제조합은
2015년 제6회 건설인 하프마라톤 대회를
오는 5월31일(일) 서울 월드컵경기장
평화의공원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광복 70년을 맞아 대한
민국과 함께 달려온 건설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설산업 재도약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건설인 축제의 장으로 마
련합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건설인 하프마라톤 대회는 이
미 명실상부한 건설인 축제로 자리 잡
았습니다. 올해 대회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한층 더 넓어진, 건설인들
의 잔치 한마당으로 펼쳐집니다.

이를 위해 마라톤 대회에 그치지
않고 건설인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
한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크게
는 범 건설인이 한데 모여 소통하고,
작게는 각 건설관련 단체와 기업별
임직원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을 마
련합니다. 30인 이상 참가 단체에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개별 부스도 제
공합니다.

행사의 외연이 넓어진 만큼 대회명도
‘건설경제에서’ ‘건설인’으로 넓혔습니다.
대회 주최도 <건설경제신문> 단독에서
건설공제조합 공동 개최로 바꿨습니다.

한강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만끽하며
달릴 이번 마라톤 대회는 하프코스과
10km, 5km, 4.5km(걷기)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열립니다.

새로워진 올해 건설인 하프마라톤
대회에 건설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세부 행사계획과 참가 신청 일정 등
은 추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일시: 2015년 5월31일(일)
- 장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평화의공원
- 코스: 하프코스·10km코스·
5km코스·4.5km 걷기
- 주최: 건설경제신문·건설공제조합



발주기관 횡포 근절 ‘고삐’ 하도급대금 지급 감시 강화

공정위 2015 주요 업무계획

입찰담합 조사 마무리 속도
‘익명 불공정정보센터’ 운영

정부가 공공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을 위해 공기업 감시의 고삐를 바짝 쥘
다. 또 입찰담합 조사를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하고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이
빈번한 건설업을 대상으로 대금의 원
활한 지급을 유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
을 담은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
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한국도지주택공사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
공사 등 공사비를 부담 감액하거나 공
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
은 6개 국가공기업에 총 311억원에 달
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는 작년에 조사를 실시한 국가
공기업에 대한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
고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
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형 발주기관 위주로 조사 대상을 선
정하고 하반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사대금의 부당 회수·
감액 행위 △공기연장 시 간접비, 공사
중지 시 지연보상금 등 각종 비용 미지
급 행위 △계열회사, 퇴직자 설립회사
등과 거래하면서 높은 낙찰률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중점 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파악하고 있는 입찰담합 행위
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
다는 계획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입찰담합 조사에 따른 과
징금 부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발주·입찰 단계에서 담합을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야 발주기
관들이 자체 입찰담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조달담당자를 대상
으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입찰 참여업체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과 내실 있는 운영
으로 입찰담합을 차단하겠다는 방안
도 내놨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
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건설 등 하도
급대금 관련 민원이 많은 업종에 대해
대금회수 불만이 집중된 1~2차 협력
업체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뭇단체에 있는
경우 상위 업체를 조사하는 이른바 ‘뭇
물고기 뜨기’ 조사 방식을 도입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는 경우 경고조치
는 하되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
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한다는 지적에 따라 익명제
보 처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홈페이지
에 제보자의 인적사항 입력 없이 제
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익명제보된 사건도 기명
신고사건에 비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 신고·제보한 중소기업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
중 제재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올해는 공공
분야가 출산해 경쟁법을 준수하고 공
정거래 질서 정착에 앞장서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면서 “신규 도입제도를
시장에 제대로 정착시켜 기업들이
스스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문화
가 자리잡도록 점검 지원하는 데도 주
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춘천, 국내 최대 ‘물 위를 걷는 수상 전망대’ 조성

길이 200m·폭 4m... 7월 착공

강원 춘천에 내년 6월 국내 최대 규모
의 물 위를 걷는 투명 수상 전망시설스카
이워크가 들어선다.

춘천시는 의암호 명소 사업의 하나
로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키
로 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의암댐 위쪽에 만든
소규모 스카이워크가 6개월간 약 30만명
의 방문객이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자
도시 한가운데 제2의 스카이워크를 설치

키로한 것이다.
스카이워크는 소양2교 옆에 있는 소양
강 체녀상 인근에서 강 한복판에 있는 물
고기 조형물까지 길이 200m 폭 4m규모
로 만들어진다.

허공을 걷는 듯한 스티를 느낄 수도
록전 구간을 투명 강화 유리로 마감한다.
춘천시는 수상 보행시설로는 국내 최
대 규모로 오는 7월 중에 착공해 내년 6
월까지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고기 조형물에는 지름 30m가량
의 대형 전망대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춘천시는 방문객을 위해 진출

입로 주변에 휴식 및 편의시설을 함께 조
성하고 주변에 주차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호수 내 환경 문제가 없도록
원주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법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동용 시장은 “중도 레크리얼 중심
으로 한 삼각관광벨트 사업의 효과를 높
이기 위한 연계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시
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키로 했
다”며 “춘천을 대표하는 소중한 관광자
원의 의암호에 스카이워크가 설치되면
호반의 도시에 걸맞은 가장 매력적인 관
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